

역주행 사고 우려 도로 개선

권익위, 안덕면 제4동광교 일방통행 구간 개선 권고 “안내 표지판 미비, 역주행 사고 일어날 가능성 높아”

서귀포시 안덕면 제4동광교 다리 밑에 조성된 도로가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 도로로 선정돼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역주행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제4동광교 도로에 대한 시설 개선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역주행 교통사고가 2건 이상 일어난 도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도로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됐는지, 안전 표지판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4동광교 다리 밑 도로는 평화로와 동광로를 교차하는 구간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다”면서 “동광교 다리 밑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도로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오갈 수 있고 남쪽 도로는 일방통행인데, 이 일방통행 도로의 안내 표지판 등이 미비해 역주행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안에 제4동광교 일방통행 구간에 차량 진입 금지 표시와 노면 표시를 명확히 하는 한편,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시설하라고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 지점을 조사해 시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역주행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5.5%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12배에 이르고 있다. 역주행을 한 운전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겨울 해수욕장 포근한 날씨를 보인 24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바다를 보며 겨울 제주를 만끽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 제주시 을 한해 환경오염물질·생활민원 점검 해보니...

축산분뇨·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여전

폐기물 오염 행정처분 28건 축산분뇨 관련법 위반 58건 공사장 먼지·소음 비일비재

제주시는 지난달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생활환경민원 등 총 5117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242개 사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분야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공사장 먼지 및 소음 등 환경영향민원 등 2484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101개소·과태료 3800만원 부과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개소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600만원 부과 △자동차배출가스 총 1837대를 점검해 매연 등 배출기준을 초과한 52대에 대해 개선권고와 개선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해 고발 8건, 영업정지 5건, 경고 1건, 조치명령 7건 및 과태료(5775만원) 19건 등 총 28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축산분뇨 관련 경우 714개소를 점검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 살포 등 가축분뇨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고발 15건, 경고 1건, 허가취

소 1건, 사용중지 3건, 과태료 38건(1790만원) 등 총 58건의 행정처분했다.

제주시 관내에는 대기·수질·소음·진동 등 사업장 2266개소, 특정오염관리시설신고 사업장 23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및 실내공기질 대상 691개소, 가축분뇨 배출 913개소, 폐기물 관련 2828개소 등 총 6928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환경민원처리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줬다”며 “내년에는 분야별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위반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대리기자

발달장애인증합복지관 건립 기공식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2021년 상반기 준공 목표

가칭 ‘발달장애인증합복지관’ 건립 기공식이 24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남쪽) 복지관 건립예정 부지에서 열렸다.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교육청,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삽식을 통해 제주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을 대내



외적으로 선포했다. >> 사진 발달장애인증합복지관은 아라동 4890㎡ 부지에 연면적 4680.5㎡,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160억원을 투입해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체육관, 다목적실,

직업훈련시설, 주거체험실, 교육활동실, 부모자조모임실, 평생교육실 등이다.

한라산 중턱에 따뜻한 동지를 틈모습을 형상화 한 복지관은 친환경 건축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으며,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복지서비스가 실생활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발달장애인증합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기대 한다”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119 심폐소생술 덕분에... 심정지 환자 소생률 1년새 4% 상승

제주에 거주하는 심정지 환자 중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아 다시 맥박을 찾은 확률이 1년새 4%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심정지를 일으킨 환자 408명 중 56명이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맥박을 되찾아, 심정지 자발순환 회복률이 13.7%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2017년 6.6%(31명 소생)에서 2018년은 9.7%(43명 소생)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심폐소생술을 즉각 실시해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심정지 상태가 4-6분 지속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겨 뇌 손상이 진행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119는 도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다. 환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목 끝부분으로 분당 100-120회(성인 기준)의 속도로 반복 압박하면 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공유용 전·현직 공무원 선고유예

공공 수천만원을 담배나 과자 구매 비용 등으로 쓴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최석문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3)씨와 현직 공무원 B(42)씨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C(55)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던 A씨 등 3명은 2014년 1월 22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25차례에 걸쳐 공공 21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담배와 고기, 과자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뒤 외상 대금을 서귀포시가 결제하게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사무품을 산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시에 제출했다. C씨 등 3명은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서도 눈 감아줬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공항기동대 해단 동부경찰서 방법순찰대로

제주국제공항경찰대는 제주공항기동대 폐지를 앞두고 24일 부대 해단식과 공항 폭발물 탐지건의 은퇴식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의경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제주공항기동대는 27일 폐지돼 제주동부경찰서 방법순찰대로 통합된다.

제주공항기동대는 1981년부터 38년간 제주국제공항 대테러 부대로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9년 기존 전투경찰에서 전원 의무경찰로 교체됐다.

이상민기자

진정한 휴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밀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파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페르카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요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 해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맹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서귀포시정 소식

제27회 성산일출축제 행사 개최 알림
○ 축제일시 : 2019. 12. 30(월) ~ 2020. 1. 1(수)
○ 축제장소 : 성산일출봉 및 성산읍 일원
○ 축제메카 : 성산일출, 새 시대의 서막
○ 세부행사계획
- 12/30 : 지질트레킹 걷기대회, 떡국 떡 찌기대회
- 12/31 : 일출희망패레이드, 노래자랑 한마당, 문화동아리 공연, 개막식, 카운트다운 등
- 01/01 : 달집점화, 불꽃놀이, 일출기원제, 햇맞이 등반 등
○ 축제문의 : 서귀포시 성산읍 ☎ 760-4282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 선정 기준 완화 알림
○ 신청기간 : 2019. 12월부터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액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국번없이12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760-6512

2020 서귀포시 STARTUPBAY 2기 입주기업 모집 알림
○ 접수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10(금)
○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 모집규모 : 입주기업 10팀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공공시설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멘토링, 사업화 성장프로그램 등
○ 입주기간 : 2020. 3. 2(월) ~ 2020. 12. 31(목)
○ 위 치 : 서귀포시 STARTUPBAY (서귀포시 중정로 86, 2층)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경제지원과 ☎ 760-2814
서귀포시 STARTUPBAY ☎ 732-0049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예방법 알림
○ 식용예방법
-어패류는 수돗물로 세척하고, 중심온도 85℃로 1분 이상 가열
-음용수는 끓여서 섭취하고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채소, 과일에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염소소독장치 정상 작동 확인
○ 2차 감염 예방
-구토, 설사 증상 시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및 오염된 손으로 접촉 주의
-환자 발생 시 공동생활구역 및 물품의 표면 소독하기
-구토 시 구토물과 그 주변은 반드시 염소소독
○ 올바른 손 씻기 :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손바닥→손등→손가락사이→두 손 모아→손뼉 밀) 손으로 양쪽 손을 깨끗하게 씻고 헹굽니다.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 760-2424